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TPP,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TPP, 가공식품, 원산지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10.05.	2015. 11.	2016.1.	2016. 10.5.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타결	신선식품 외,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할 계획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 표시기준 검토 시작	일본정부, '모든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일본정부, 모든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정부, 모든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를 확대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16년 10월 5일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도 타결된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삭감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농수축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작년 2015년도 10월 미국이 1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뚜렷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1월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인 신선식품 외에도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기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TPP에 따라 일본 내 외국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2016년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식품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를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가공식품에 함유된 원재료의 주성분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일본의 식품 소비자가 자국의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선택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 검토회는 2016년도 9월12일 기준으로 제 8회 검토회를 마쳤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은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22개의 식품군과 장어구이를 포함하는 4개의 개별품질 표시기준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공식품 원산지표기 규정은 많은 예외 사항을 포함하는데 식당이나 식당에서 포장하는 테이크 아웃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일본 정부는 자국산 농수축산물 보호와 일본의 식품 수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 규제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표시와 같은 일본의 정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원산지 표기는 일본 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내의 식품 제조업체들도 식품의 원재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정책이 성립될 경우, 국산과 수입산 원료를 혼합해 사용하던 식품 제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